

찬송가 412장 -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

-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사락이 울려나네
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
 -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
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
 -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
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
 -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
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
- (후렴)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
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영혼을 덮으소서

찬송가 491장 - 저 높은 곳을 향하여

-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
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
 -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
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
 -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
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
 -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
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
 -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
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
- (후렴)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
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

2025년

추모 예배



추모 예배 순서

※ **예배 전 유의사항**

순서에 들어있는 '말씀나눔'은 같이 읽거나
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.

개식사 인도자

지금부터 故 000 씨(아버지, 어머니)의 00 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.
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.

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

찬 송 412장 다같이

기 도 가족 중 한 사람

성경말씀 골로새서 3장 1-4절 (신약 326쪽) 말은이

-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
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
-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
-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
-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
나타나리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
생육하였느니라

말씀나눔 '하늘 소망' 말은이

기 도 인도자

찬 송 491장 다같이

주기도 다같이

말씀나눔

하늘 소망

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
립니다.

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
며 땅에 것을 추구합니다.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며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투자를
합니다.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은 위에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. 성도들은
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.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에 것을
찾아야 합니다.

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. 위에 것을
찾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 합니다.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나
목표,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에는
천국 시민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성도는 왜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?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
입니다. 그 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.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 인생의 나
네길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. 모든 세상과 역사의 종착역이 하늘나라 입니다.
세상은 끝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.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소망이
있습니다.

그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
셨습니다.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.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
있는 것입니다.

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.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
유일한 길입니다.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었으며 이 세상 가
운데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도
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.

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 소망을 붙잡았습니다.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
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. 하늘을 바라보십시오. 그곳에 소망이 있
습니다.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
니다.